

# 개교 3년만에

## 혁신교육 선도

## 각광받다

양현고등학교(교장 김갑식)는 2015년 전북혁신도시에 개교했다.

올해 2월이면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2016년 과학중점학교, 2017년 혁신학교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신설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북혁신도시 내에 신뢰받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의 교육활동을 돌아본다.

/편집자 주



양현고등학교 전경.

### 과학중점학교와 혁신학교로 균형

양현고는 2016년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돼 수학·과학관련 수업, 체험, 연구 등에서 다른 일반 고등학교보다 두드러진 활동을 선보였다.

1학년은 공통과제로 전체 학년이 참여하지만 2학년부터는 주로 이과생들에게만 제공된다.

또 지난해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돼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문과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토론, 글쓰기 등의 인문 소양교육 뿐만 아니라 밴드부와 스포츠클럽 강사를 초빙하는 등 예체능까지 전문적인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학교가 다양하게 운영되는 기록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이과중심으로 운영됐던 과학중점학교를 전체적으로 문과와도 연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주제통합 프로젝트 수업 수행평가'나 '거꾸로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

2016학년도부터는 수석교사가 배치돼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과 교사의 수업동아리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억지로 수업을 개선하거나 수업공개를 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대신 수업을 개선하고 싶은 교사에게는 아낌없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교사 평가동아리 역시 1년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다.

학생평가관련 도서를 읽거나 수행평가를 공유하며 더 좋은 평가를 위한 모델을 찾고자 노력을 해 왔다.

### 학생·교사도 동아리에 심취하다

매주 수요일 6~9교시를 진로맞춤형 자기계발시간이다.

학생들은 이 시간에 자치활동과 자율동아리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자율동아리는 주2~3시간을 확보해 주면서 활기를 띠었고 50개로 늘어나 매주 앞장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고등학생이다 보니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많다.

개교 후 3년째 이어오는 내실 있는 동아리도 있다.

혁신학교 덕분에 이뤄 두었던 밴드부도 올해 만들어져서 강사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스포츠클럽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구, 여자배구도 선수 출신인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구 동아리에 참여하는 1학년 이하 학생은 "선수출신의 강사님이 세밀한 부분까지 전문적으로 가르쳐줘서 이해가 잘 돼요"라며 "가능하면 3학년 때까지 꾸준히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교사 동아리도 활발하다.

진로맞춤형 자기계발시간은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에게도 여유를 줬다.

10여 개의 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되는데 학년 교사들의 동아리,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원, 행정실, 원로교사, 논어학습, 기타 연주, 인권 동아리 등 다양한 연령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양현고등학교는 이달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앞두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개소식을 할 예정. 전라북도에는 전라중학교에 이어서 두 번째이자, 고등학교로는 첫 번째다.

이미 10명의 이사진이 꾸려져 있는데 각각 5명의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단순히 매점 운영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교육, 복지수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회를 제공해준다.

### 여전한 과제 '혁신학교=대입 성적'에서 벗어나는 사고가 필요

혁신고등학교의 성과를 입시의 결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시각은 여전히 교내 외에 많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성적이 말해준다', '해마다 서울대를 보내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비관으로 돌아올 것이다', '혁신학교는 입시 성적이 좋지 않다'는 말 등이 그런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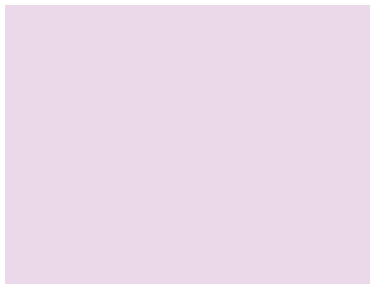
연구혁신부장은 이러한 시각이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연구혁신부장은 "주위에서 혁신학교는 성적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 어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라며 "저는 입시라는 방해막으로 모든 것을 막으려는 논리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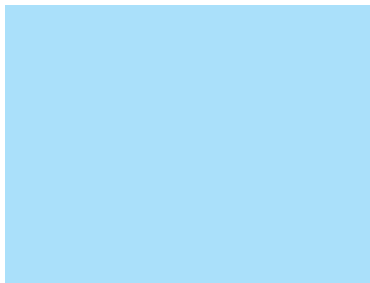
또한 "혁신학교는 입시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며 "양현고는 혁신학교의 방향을 '진로맞춤형 혁신학교'라고 지칭하면서 '진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입시위주로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사고에서 교육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고로의 전환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공=양현고등학교



토론 등 인문 소양교육 지원  
자치활동·자율동아리 활동  
경제교육 등 다양한 기회 제공





## 즐거운 설맛이 장수 농·특산물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NAVER 장수군청 검색 www.장수물.com JANGSU MALL